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9



Contents

※ 2025.07.24.(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7.17.~2025.07.23.)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1

-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원전·수소의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강조(2025.07.17) ... 1
- 과기정통부, AI 휴머노이드 및 무전력 수소 생산 등 미래 융합기술 개발 본격 지원(2025.07.17) 1
- 울산시와 카프로, 수소허브 도시로의 산업 대전환 공동 선언(2025.07.17) 2
- 이강덕 포항시장, 이차전지·바이오·수소 3대 특화단지가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강조(2025.07.21) .. 2
- 삼척시, 수소산업 거점도시 및 교통망 확충 등 민선8기 주요 성과 공개(2025.07.21) ... 3
- 춘천시, 첫 액화수소충전소 개소로 친환경 교통 전환 가속화(2025.07.21) 4
- 양양군, 하반기 수소전기차 7대 추가 보급으로 친환경차 활성화 추진(2025.07.21) 4
- 창원시 액화수소 플랜트 현안 해결 위한 전문가 토론회 23일 개최(2025.07.21) 5
- 인천 영흥도, 풍력·수소 중심의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본격화(2025.07.22) 5
- 포항시, 수소특화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후속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2025.07.22) 6
- 성남정수장, 국내 최초 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및 본격 공급 시작(2025.07.22) 6
- 고양시, 대한민국 대표 드론·UAM 산업 박람회 개최 추진(2025.07.21) 7
- 여주시, 하반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강화(2025.07.19) 7

■ UAM 분야 8

-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개막, UAM 등 미래 항공정책 글로벌 논의의 장 열려(2025.07.23) · 8
- 울산시,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 도전으로 상용화 선점 기대(2025.07.22) 8

■ 우주 분야 9

- 우주항공청, 대학 중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스페이스-K BIG 프로젝트' 착수(2025.07.17) 9
- 우주항공청, 달을 우주경제 기반으로 삼는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공개(2025.07.17) · 9
- 방위사업청, AI·우주 등 혁신기업 300개 육성으로 방산 생태계 확장 추진(2025.07.17) · 10
- 우주항공청, 차세대 발사체 및 KPS 등 핵심 우주 사업 지연 논란(2025.07.19)10
-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 시행(2025.07.17) 11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반대 및 우주기본법안 철회 촉구(2025.07.17) · 11
- 고흥군, '우주선 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2025.07.17) 12
- 대전, 집적된 R&D 인프라 기반 '우주항공 R&D 거점' 당위성 부각(2025.07.18) 12
- 전남 고흥 '별나로마을', 바다·농촌·우주 체험 가능한 이색 휴양지로 선정(2025.07.18) ... 13
- 조규일 진주시장, K-기업가 정신 확산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시정 집중(2025.07.18) 13
-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5대 핵심 현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2025.07.18) · 14
- 김제홍 사천부시장, 우주항공기업 현장 방문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약속(2025.07.21) 14
- 사천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캠페인 본격화(2025.07.23) 15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15

- 에너지연, 차세대 비불소계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위한 전략연구단 발족(2025.07.17) ... 15
- 핵융합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수소저장용기 추가 수주로 기술력 입증(2025.07.18) .. 16
-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지역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2025.07.23) 17
-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수소산업 선도할 예비수소전문기업 12개사 선정 지원(2025.07.22) 17

■ ✎ 우주 분야 18

- KAI,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제23회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개최(2025.07.20) 18
- 우주항공청, 성능 대폭 개선된 '천리안위성 6호' 개발 본격 추진(2025.07.21) 18
-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누리호 기술 이전... '뉴 스페이스' 시대 가속화(2025.07.22) ... 1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 수소 분야 20

- 엔지더블유, 늘푸른농장과 파트너십으로 그린수소에너지 시장 공략(2025.07.17) 20
- 두산그룹, SMR·수소·AI 등 미래 기술로 200년 기업 향한 변신 가속(2025.07.18) 20
- 흥스웍스, 연료전지 효율 높이는 '수소 재순환 이젝터' 자체 기술로 개발(2025.07.18) 21
- 극동대학교, 5개 기관과 수소안전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및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2025.07.17) 21
- 금오공대 고규현 교수팀, 버려진 폐광 활용한 수소 저장 기술 국제공동연구 착수(2025.07.21) ... 22
- 스틸란티스,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수소차 생산 중단 결정(2025.07.17) 22
- 케이벡 비나와 홀트에너지, 베트남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발전사업 공동 추진(2025.07.18) ... 23

■ ✎ 우주 분야 24

- (주)보령 김정균 대표, "미래 우주 시대에 필요한 의약품 개발이 목표"(2025.07.17) 24
- 인세라솔루션, 우주광통신 핵심부품 'FSM' 국산화로 글로벌 시장 공략(2025.07.21) ... 25
- 전북대·서울시립대 공동연구팀, 실리콘 기반 차세대 근적외선 광센서 개발 성공(2025.07.17) 25
- 계명대 연구팀, 항공·우주 시스템 설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 최적화 기술 개발(2025.07.17) 26
- 트럼프 행정부, 스페이스X와의 정부 계약 유지 불가피 결론(2025.07.21) 26
- 유럽우주국(ESA), 한국 우주항공청과 공식 협력 추진으로 '한·유럽 우주동맹' 가시화(2025.07.17) 27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원전·수소의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강조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수소 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를 제시함. 그는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치지 않고 각 에너지원의 장점을 활용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피력함 - 김 후보자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SMR) 1기 건설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또한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여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의를 이뤄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진단함 -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이 겪는 규제와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함. 특히 고리 원전과 같이 폐쇄된 원전과 계속 운전 중인 원전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이는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됨
	<p>□ 과기정통부, AI 휴머노이드 및 무전력 수소 생산 등 미래 융합기술 개발 본격 지원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 유망 융합 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함.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AI 휴머노이드 기술, 외부 전력 공급 없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자가 구동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배터리나 외부 전원 없이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수확해 1mW 이상의 전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임.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협력하여 외부 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증양부처	<p>너지 공급 없이 촉매 반응만으로 지속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는 수소 생산의 비용과 장소 제약을 극복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는 AI 휴머노이드, 무전력 수소 생산과 같은 고난도 융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하고 글로벌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과제당 최대 5년간 총 45억 원에서 54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민관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여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임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울산시와 카프로, 수소허브 도시로의 산업 대전환 공동 선언(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가 국내 대표 석유화학기업인 카프로의 본사 이전을 계기로 미래 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 구조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울산시는 카프로 본사 이전 환영식을 개최하고, 양측이 ‘지속가능 산업전환 공동비전 선언문’을 채택하며 석유화학 중심에서 수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함.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업 이전을 넘어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평가됨 - 양측이 채택한 공동비전 선언문에는 디지털 전환 및 미래 에너지 전략 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인재 육성, ESG 기반 책임경영 실천, 민관 협력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포괄적인 협력 의제가 담겨 있음. 카프로는 지난 5월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출하센터를 준공하는 등 수소 에너지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어, 울산의 산업 인프라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울산시는 이번 카프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 밀착형 산업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가덕신공항 및 남부내륙철도 등 새로운 광역 인프라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카프로와 울산의 인프라 결합이 화학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언이 지역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함 <p>□ 이강덕 포항시장, 이차전지·바이오·수소 3대 특화단지가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강조(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1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포항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꼽음. 이 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장은 시민과의 소통과 함께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철강 도시에서 첨단 신산업 도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산업 구조의 혁신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왔음. 3대 특화단지 조성은 이러한 시정 철학의 핵심 결과물로, 포항의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내년에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가 완공되면, 산업과 문화, 관광이 융합된 마이스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 이 시장은 이제 포항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경쟁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도시 그 자체의 브랜드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역설함. 남은 임기 동안 의과대학 및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전념하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함
지자체	<p>□ 삼척시, 수소산업 거점도시 및 교통망 확충 등 민선8기 주요 성과 공개(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8기 4년차에 접어든 삼척시가 수소산업 거점도시 완성, SOC 확충,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이룬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 성과를 발표함. 특히 수소 분야에서는 저장·운송 클러스터 예타 통과,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함. 이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시의 체계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결실을 본 것임 - 삼척시는 수소 생산부터 R&D, 실증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수소계량 신뢰성센터, CCUS 진흥센터 등 핵심 기관들을 유치했으며,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관련 앵커 기업들을 집적화할 계획임. 이러한 노력으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소 분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음 -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삼척~영월 동서고속도로 예타 통과, 삼척~포항 동해선 철도 개통 등 30년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룸.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향후 물류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주요 국책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춘천시, 첫 액화수소충전소 개소로 친환경 교통 전환 가속화(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춘천시가 동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내에 지역 최초의 액화수소충전소를 개소하고 오는 25일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함. 이번 충전소는 국토교통부의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되었으며, 춘천시의 네 번째 수소충전소이자 첫 액화수소 방식 충전소로 기록됨. 이는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신규 충전소는 시간당 120kg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4기를 갖추고 있어, 하루 최대 100대의 수소 버스나 트럭을 충전할 수 있는 대규모 처리 용량을 자랑함.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운송 효율과 안전성이 높아 대규모 상용차 충전에 적합하며, 이번 충전소 개소로 춘천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 - 충전소 운영은 SK플러그하이버스가 맡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판매가격은 1kg당 1만 1,000원으로 책정됨. 춘천시는 경유 버스가 다량의 온실가스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계획임
지자체	<p>□ 양양군, 하반기 수소전기차 7대 추가 보급으로 친환경차 활성화 추진(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양양군이 대기환경 개선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함. 군은 총 2억 4,1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반기에 총 7대의 수소전기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임 -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넥쏘'와 '디올뉴넥쏘' 두 가지 모델이며, 구매자에게는 차량 1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됨.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양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주어지며, 군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 군은 전체 보급 물량 7대 중 1대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창원시 액화수소 플랜트 현안 해결 위한 전문가 토론회 23일 개최(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창원시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3일 창원시의회에서 현안 토론회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임 - 토론회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소연구실의 최용남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맡아 액화수소 기술과 산업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할 예정임.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국기계연구원, 미래에셋자산운용, 효성중공업, SK E&S, 범한메카텍 등 학계, 금융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논의할 것임 -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해정 창원시의원은 이번 자리가 창원시 액화수소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창원시가 대한민국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지자체	<p>□ 인천 영흥도, 풍력·수소 중심의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본격화(2025.07.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인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옹진군, 한국남동발전, 삼성물산 등 11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공동 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는 영흥화력발전소 일대에 해상풍력 및 무탄소 수소발전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AI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하여 연구, 교육, 체험 기능이 복합된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 시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임 - 컨소시엄은 오는 8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사업의 경제성, 투자 유치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인천의 에너지 전환을 상징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포항시, 수소특화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후속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2025.07.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포항시가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함. 이번 보고회는 경북도, 포항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소 관련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특화단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8%가 포항 수소특화단지 입주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포항시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프라 고도화 전략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조성될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함 -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는 기업집적화, 부품소재 성능평가, 국산화 시범 등 3대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됨. 포항시는 이를 통해 수소 관련 기업 70개사 유치, 연간 매출 1조 원 달성, 1,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김정표 국장은 기업 유치와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 특화단지 성공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p>□ 성남정수장, 국내 최초 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및 본격 공급 시작(2025.07.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 성남정수장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을 이용해 생산한 그린수소를 인근 수소충전소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함. 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이 실증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총 44억 원이 투입된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하루 최대 188kg, 연간 최대 62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이는 수소 승용차 약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으로, 초기에는 운송 차량을 통해 공급하다가 오는 10월부터는 배관을 통해 인근 충전소에 직접 공급될 예정임. 이를 통해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가 기존 부생수소나 개질수소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 현재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공급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환경부는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밀양댐, 충주댐 등으로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지역 자립형 그린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고양시, 대한민국 대표 드론·UAM 산업 박람회 개최 추진(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특례시가 오는 11월 5일부터 사흘간 킨텍스에서 '2025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올해 2회차를 맞는 이 박람회는 로보월드, AI 쇼 등 다른 첨단 기술 전시회와 통합 개최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기업과 관람객 모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임 - 이번 박람회는 전시 규모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함. 한국공항공사, 포스코 등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가를 확정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관'을 유치하고 우주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등과 UAM 관련 전문 컨퍼런스를 구성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 특히 최근 주목받는 방산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교육사령부 등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어 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음. 고양시는 GTX 개통 시점과 맞물려 더 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대한민국 대표 기술 전시회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p>□ 여주시, 하반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강화(2025.07.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여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국비 지원 단가가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자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시민들의 구매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는 친환경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여주시는 올 하반기에 전기차 260대와 수소전기차 13대 등 총 273대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상반기 지원 대수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임. 특히 사회적 배려 계층과 청년층의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함 - 시는 보조금 지원 사업과 더불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병행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 보전과 시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임을 약속함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개막, UAM 등 미래 항공정책 글로벌 논의의 장 열려 (2025.07.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항공 분야 대표 국제행사인 '2025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CIAT)'가 인천에서 개막함. 3년 주기로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 8회째를 맞았으며, 전 세계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과 ICAO, IATA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680명이 참석해 항공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함 - 이번 콘퍼런스는 항공안전, 디지털·AI, 항공운송, 환경·지속가능성 등 4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세션에서는 리튬배터리 안전 기준부터 인공지능 기술 활용, 팬데믹 이후의 항공화물 시장 전략,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방안에 이르기 까지 항공 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됨 - 특히 부대행사로 열리는 고위급 정책포럼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각국의 전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포럼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등 새로운 항공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항공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힘
<p>지자체</p>	<p>☐ 울산시,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 도전으로 상용화 선점 기대(2025.07.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국내 첫 도시가 되기 위한 도전에 나섬. 전국 7개 지자체 및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번 공모는 실제 UAM 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입지 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시 정부의 공식적인 UAM 거점 지역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울산은 '관광형+교통형' 복합 사업 모델을 제안했으며, 울주군 길천일반산업단지의 UAM 클러스터와 KTX울산역, 태화강역을 잇는 버티포트 구축 계획을 핵심으로 내세움. 길천산단에서는 이미 1,007억 원 규모의 국토부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R&D와 실증을 연계하여 산업 전 주기에 걸친 테스트베드로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시는 공모에 선정되면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서 UAM 시범 운항을 선보여 울산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을 계획임. 비록 수도권 교통난 해소, 남해안의 섬 관광 연계 등 경쟁 지자체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지만, 울산은 기존 자동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선제적인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UAM 상용화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우주항공청, 대학 중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스페이스-K BIG 프로젝트' 착수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대학을 중심으로 우주 분야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스페이스-K BIG 프로젝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이 사업은 세계 최고 기술과의 격차를 줄이고, 대학의 연구 성과가 민간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올해는 우주수송과 우주과학탐사 분야부터 지원을 시작함 -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최대 5년간 약 5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각 분야의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됨. 우주과학탐사 분야에서는 KAIST의 '미래 우주탐사 핵심기술 연구센터'가,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인하대학교-서울대학교-한성대학교 컨소시엄의 '우주수송 임무센터'가 각각 최종 선정됨 - KAIST는 심우주 탐사 임무설계 및 전기추진 등 융복합 기술을 연구하며, 인하대 컨소시엄은 재사용 발사체 실현을 위한 추진시스템 및 비행제어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임. 권현준 우주항공정책국장은 이 프로젝트가 미래 우주 기술의 자립화와 민간 중심의 혁신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냄
	<p>☐ 우주항공청, 달을 우주경제 기반으로 삼는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공개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2045년까지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초안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함. 이번 로드맵은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의 확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태양계 기원 탐구, 우주자원 활용, 신산업 창출 등 5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탐사 계획을 담고 있음 - 로드맵의 핵심 중 하나는 달을 단순한 과학 연구 대상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전략임. 이를 위해 독자적인 달 착륙 및 이동 기술을 개발하고, 현지 자원 활용(ISRU) 기술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달에 경제기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함. 이는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우주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함 - 우주청은 탐사 영역을 지구·달, 태양권, 심우주로 나누고, 저궤도 탐사, 달 탐사, 태양·우주과학 탐사,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탐사 등 5대 프로그램을 통해 임무를 추진할 계획임. 윤영빈 청장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방위사업청, AI·우주 등 혁신기업 300개 육성으로 방산 생태계 확장 추진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내수 중심 생태계를 민간 기업과 지자체, 우방국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생태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강 차장은 '방산 혁신 생태계 구축'을 K방산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방사청은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혁신 전문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특히 인공지능(AI), 우주, 반도체 등 5대 첨단 분야에서 2027년까지 300개의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방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720억 원을 투자하여 방산 생태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다는 방침을 밝힘 - 또한,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계·소재, 항공우주 등 기반 산업 분야에 연간 600억 원을 투자하여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움. 아울러 '첨단 민군 협의체'를 가동하여 군의 수요와 민간의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함정 MRO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함
	<p>□ 우주항공청, 차세대 발사체 및 KPS 등 핵심 우주 사업 지연 논란(2025.07.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5월 한국 우주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핵심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며 '5대 우주 강국'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표적으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재사용 기술을 적용하고 연료를 기존 등유에서 메탄으로 변경하는 사업 변경을 추진하면서, 아직 기본 설계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임.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대한 업계의 당혹감과 메탄 연료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약 3.7조 원이 투입되는 KPS 사업 역시 위성 1호기 발사가 당초 계획보다 20개월 늦어진 2029년 9월로 연기됨. 이처럼 핵심 사업인 차세대 발사체의 제원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실려야 할 달 착륙선과 탐재체 개발 역시 차질을 빚고 있어 2032년 달 착륙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 시행(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진주시가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함. 이 사업은 이주 가족이 진주시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주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임 - 지원 대상은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 가족 구성원 중, 진주에서 신규로 소상공인 창업을 하여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임. 지원금은 창업간접비(임차료, 재료비) 또는 지역 주민 채용 인건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됨 - 진주시는 이번 창업 지원 사업 외에도 이주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지원 사업, 중소기업 채용·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시 관계자는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들이 우주항공청 직원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융화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밝힘 <p>□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반대 및 우주기본법안 철회 촉구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최근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우주항공청이 통합 수행하고 있는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 개발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 우주 전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함 -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해당 우주기본법안이 기존 법령과 기능적으로 중복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심각한 행정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함. 또한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역행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임 - 위원회는 경남이 국내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중심지이며,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앞으로 경남도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역 정치권 및 전문가와 연대하여 범도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고흥군, '우주선 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고흥군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영민 군수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을 포함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정 과제 선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함 - 고흥군이 건의한 5대 핵심 사업은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임. 이 사업들은 나로우주센터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고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됨 - 공영민 군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연계된 이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그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
	<p>□ 대전, 집적된 R&D 인프라 기반 '우주항공 R&D 거점' 당위성 부각(2025.0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이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핵심 연구기관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최적의 '우주항공 R&D 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2024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우주산업 참여기관의 약 24%가 충청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기관 부문에서는 전체 35곳 중 40%인 14곳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R&D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증명함 - 대전의 R&D 거점화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발사체-전남, 위성-경남, 연구·인재-대전)의 핵심 계획이기도 했음. 대전의 풍부한 산·학·연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른 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 우주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힘 - 황정아 국회의원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이 기존 기관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청의 역량을 '플러스 알파'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지역 과학기술계 역시 연구개발본부의 기능과 역할,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대전이 R&D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전남 고흥 '별나로마을', 바다·농촌·우주 체험 가능한 이색 휴양지로 선정(2025.0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가 여름 휴가철 가족 여행지로 고흥군 포두면에 위치한 '별나로마을'을 이달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함. 이 마을은 넓은 간척지 농경지와 갯벌을 배경으로 바다, 농촌, 우주라는 세 가지 테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채로운 체험을 만끽할 수 있음 - 별나로마을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갯벌에서 바지락, 고동, 칠게 등 다양한 생물을 직접 채집하고 관찰하는 활동으로, 특히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인기가 높음. 또한,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해 직접 유자청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제공하여, 교육적 효과와 함께 특별한 기념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근에 대한민국 우주과학의 심장인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전망대가 위치해 있다는 점임. 방문객들은 농촌과 어촌의 자연을 즐기는 동시에, 첨단 우주 과학 기술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우리나라 우주 기술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음
	<p>□ 조규일 진주시장, K-기업가 정신 확산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시정 집중(2025.0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규일 진주시장이 민선 8기 4년차 시정 운영 방향으로 'K-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100년 정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조 시장은 지난 7년간 진주시가 문화, 경제, 도시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왔음을 강조하며, 향후 1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결실을 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진주시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서, LG, GS 등 대기업 창업주들의 정신이 깃든 지수 승산마을을 중심으로 K-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글로벌 창업가 탄생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통해 진주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임 - 동시에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 지구를 핵심 기반으로 삼아 위성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첨단 시험시설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5대 핵심 현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 (2025.0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동식 사천시장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여 5대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함.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연계된 이번 건의는 사천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됨 - 사천시가 건의한 5대 핵심 과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국가지원 ▲사천항공MRO산업 경쟁력 강화 ▲사천우주항공 국가철도망 구축 ▲우주항공 과학영재 학교 설립 ▲KF-21 비행소음 피해대책 마련임. 이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관련 산업 및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음 - 특히 박 시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또한, 진주역-우주항공청-삼천포항을 잇는 국가철도망 신설과 항공우주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함 <p>□ 김제홍 사천부시장, 우주항공기업 현장 방문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약속(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홍 사천시 부시장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우주항공 관련 기업 13곳을 직접 방문함.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직접 반영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적극적인 소통 행보임 - 김 부시장은 두원중공업, 아스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등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들의 생산 현장과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기술력과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함. 이어진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생산시설 확대,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산업단지 내 교통 및 편의시설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됨 - 김 부시장은 제기된 문제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사천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기적인 기업체 순회 간담회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사천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캠페인 본격화(2025.07.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사천시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우주항공 허브공항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범도민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돌입함. 박동식 사천시장이 직접 홍보 피켓을 들고 캠페인 시작을 알렸으며, 이번 서명운동은 경상남도 주관하에 진주시와 공동으로 9월까지 경남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임 - 사천공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항공 MRO 클러스터, 우주항공청 등 국가 핵심 우주항공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시는 국제공항 승격을 통해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늘어나는 비즈니스 및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임 - 사천시는 시의회, 경찰서, 상공회의소, KAI 등 주요 기관과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 서명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8월에는 공항 터미널에서 현장 캠페인을 벌이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임. 박동식 시장은 이번 서명운동이 경남 전체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함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에너지연, 차세대 비불소계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위한 전략연구단 발족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비불소계 전해질막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돌입함. 이 연구단은 향후 5년간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불소계 전해질막의 환경 유해성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불소계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용화된 불소계 전해질막은 연료전지 내 수소와 산소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핵심 소재이지만, 환경 규제 강화와 비싼 가격이 상용화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음. 이에 연구단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비불소계 고분자 기반 전해질, 비불소계 지지체 기반 강화복합막, 그리고 대면적 막전극접합체(MEA) 제조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임 - 이창근 에너지연 원장은 연구원이 소재 개발부터 시스템 실증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함. 앞으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증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 패키지 전략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장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국가기관	<p>□ 핵융합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수소저장용기 추가 수주로 기술력 입증 (2025.0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핵심 설비인 '중성입자빔용 수소저장용기(NBSB)' 제작 사업을 추가로 수주함. 이번 사업은 ITER 국제기구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 성과를 인정하여 직접 요청한 것으로, 핵융합 연료주기 분야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임 - 중성입자빔용 수소저장용기는 ITER의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데 필요한 수소 동위원소를 급속에 흡착시켜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시 정밀하게 공급하는 핵심 장치임. 한국의 KSTAR 장치가 중성입자빔 가열장치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이온온도 1억 °C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관련 기술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 이번 수주의 결정적 배경이 됨 - 우리나라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1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며 설계부터 제작, 시험, 운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됨. 이는 삼중수소 저장·공급시스템(SDS) 조달에 이은 추가 성과로, 핵융합 연료의 저장과 공급 전반에 걸친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나아가 미래 핵융합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핵융합에너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지역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2025.07.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역 내 유망 수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의 3차 수혜기업을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함.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남도는 연간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수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음 - 지원사업은 수소 관련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국내외 인증 획득,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 도입 및 보호, 홍보물 제작 등 총 13개 유형의 프로그램 중에서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금이 지급됨 -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기술닥터) 매칭, 수소안전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음. 지난해에도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3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전남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임
지방기관	<p>□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수소산업 선도할 예비수소전문기업 12개사 선정 지원 (2025.07.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테크노파크가 경상남도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12개의 수혜기업을 최종 선정함.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소 관련 매출 실적이나 특허를 보유한 경남 지역의 유망 기업들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 등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됨. 선정된 12개 기업은 각각 최대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 등 10개 분야의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됨 - 경남테크노파크는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 외에도 타겟형 판로 개척 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임. 김정환 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남 지역을 넘어 국내 수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KAI,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제23회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개최(2025.07.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제23회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을 개최함. 20년 이상 이어져 온 이 공모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항공우주 분야 전문 공모전으로, 산업계와 학계의 우수 인재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특히 지난해부터는 우주항공청과 협력하여 최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 각각 KAI CEO상과 우주항공청장상을 수여하고 있음. 이는 정부와 대표 산업체가 손잡고 차세대 항공우주 리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상징적인 협업의 일환으로, 공모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 공모 분야는 KAI가 선정한 6대 차세대 주력사업(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다목적 수송기, 미래비행체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KAI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 KAI는 이 공모전이 젊은 세대에게 항공우주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힘 <p>☐ 우주항공청, 성능 대폭 개선된 '천리안위성 6호' 개발 본격 추진(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천리안위성 2B호'의 성공적인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위성인 정지궤도 환경·해양 감시위성 '천리안위성 6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우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청은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27년 개발에 착수하여 2033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중심의 우주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 기조를 반영한 중요한 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리안 6호는 민간 산업체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기상청이 주관하는 천리안 5호에 이어 정지궤도 위성 분야에서 두 번째 민간 주도 개발 사례가 됨. 우주청은 위성 시스템 본체 개발을 산업체가 주도하는 구조를 적용하여, 민간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지궤도 위성 시장까지 민간 참여를 넓히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임 - 기술적으로도 6호 위성은 기존 2B호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될 예정임. 환경탐재체는 대기질, 오존 등의 감시 해상도를 높이고 야간 관측 기능을 추가하며, 해양탐재체는 편광 채널을 추가하여 적조 등 해양 재난 탐지 능력을 개선함.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한 환경·해양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p>□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누리호 기술 이전...'뉴 스페이스' 시대 가속화 (2025.07.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누리호 기술 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25일 공식 협정 체결이 예정됨. 이번 협정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민간 기업에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을 100%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이 민간 주도형 '뉴 스페이스' 시대로 본격 전환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되어 누리호 4~6차 발사를 주관하며 기술을 이전받아 왔음. 그동안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으나, 이번 협정 체결로 갈등이 봉합되고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됨 - 이번 기술 이전은 미국의 스페이스X가 NASA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 우주 시대를 연 것처럼, 국내에서도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를 통해 한국 독자 우주 수송능력 확보를 넘어,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엔지더블유, 늘푸른농장과 파트너십으로 그린수소에너지 시장 공략(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에너지 기업 엔지더블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늘푸른농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린수소에너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섬. 이번 협약은 엔지더블유가 독자 개발한 수소생산 시스템(HAAMA)을 늘푸른농장의 포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연내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경제 모델을 구현할 계획임 - 엔지더블유의 HAAMA 시스템은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전자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임.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음식물쓰레기 특성에 맞춰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울산과학기술원 등 다수 대학과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함. 현재 기술 관련 특허 11개를 등록하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엔지더블유는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청정 그린수소 생산, 슬러지 감량, 폐수 처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원스톱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매출을 극대화할 방침임. 또한, 광역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와의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정수소 생산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p>□ 두산그룹, SMR·수소·AI 등 미래 기술로 200년 기업 향한 변신 가속(2025.0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 129주년을 맞은 두산그룹이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로봇,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2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두산은 전통적인 중공업 이미지를 넘어, 무탄소 에너지와 첨단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음.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됨 - 에너지 분야에서는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퓨얼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두산에너지빌리티는 SMR 파운드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 5번째로 개발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2027년까지 400MW급 초대형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가스발전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은 기계, 자동화, 반도체, 신소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두산밥캣은 세계 최초의 완전 전동식 콤팩트 트랙 로더를 선보이며 친환경 건설기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두산로보틱스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박정원 회장의 강조에 따라 그룹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두산 고유의 AI 생태계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p>□ 홍스웍스, 연료전지 효율 높이는 '수소 재순환 이젝터' 자체 기술로 개발(2025.0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에너지 시스템 부품 개발 기업 홍스웍스가 연료전지 내부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수소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수소 재순환 이젝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함. 이 기술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연료전지로 공급되는 수소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 미반응 수소를 재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전체 효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홍스웍스가 개발한 이젝터는 유동해석 기반의 최적화 설계를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함. 특히 저출력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연료전지 내부의 수소 역류 현상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짐. 이를 통해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높여 수소차, 드론, 건물용 연료전지 등 다양한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응용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 - 홍스웍스는 이미 200kW급 이상의 대용량 연료전지 시스템에 적합한 이 기술의 전체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산업의 기술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미반응 수소의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 효율과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이 기술은 향후 확대될 수소 모빌리티 및 발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됨
대학교	<p>□ 극동대학교, 5개 기관과 수소안전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및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대학교가 미래 수소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기업 및 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 (주)미성가스이엔지와는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안전 기술 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R&D, 재직자 교육, 기술자문 등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함. 이는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됨 - 이번 협약과 더불어 (주)미성가스이엔지, (주)아이에스티이, (주)금강씨엔티, (주)라이트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릿지, 충북에너지산업융합원 등 5개 기관이 총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극동대학교에 전달함. 각 기관이 1,000만 원씩 기탁한 이 기금은 미래 수소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관련 분야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됨</p> <p>- 류기일 극동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과 기금 전달이 수소안전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내실화를 다지는 뜻깊은 계기임을 강조함.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미래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대학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함</p>
	<p>□ 금오공대 고규현 교수팀, 버려진 폐광 활용한 수소 저장 기술 국제공동연구 착수 (2025.07.21)</p> <p>- 국립금오공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고규현 교수 연구팀이 해안가 유휴 폐광이나 폐오일저장소를 활용해 대규모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에 선정됨. 이 연구는 도심 인근 지하에 수소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저비용·친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할 핵심 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p> <p>-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으로,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고규현 교수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룸. 연구는 향후 3년간 노르웨이 지반공학연구소(NGI)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유휴 지하공간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개념의 지중수소저장소 설계 및 다중 사고 시나리오 기반의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함</p> <p>- 고규현 교수는 이번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 이미 다수의 국내 연구과제 수주와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등으로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고 교수의 이번 연구는, 미래 수소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대규모 수소 저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p>
해외	<p>□ 스텔란티스,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수소차 생산 중단 결정(2025.07.17)</p> <p>- 세계 4위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가 수소차 시장의 중장기적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 프로그램 종료와 상용차 생산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이에 따라 올해 여름 프랑스와 폴란드 공장에서 양산할 계획</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이었던 수소 기반 상용차 '프로 윈' 신형 라인업 출시 계획이 전면 철회됨. 이는 수소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주요 완성차 업체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텔란티스는 수소 시장이 여전히 틈새시장에 머물러 있고, 충전 인프라 부족과 대규모 투자 필요성 등 사업성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함. 장 필리프 앙파라토 유럽 총괄 최고운영책임자는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 충족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제품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함 - 이번 결정은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프랑스는 전기차 분야에서 아시아 기업에 뒤쳐진 반면, 수소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키워왔기에 스텔란티스의 사업 철수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스텔란티스는 이번 결정이 주주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연구 개발팀은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임
해외	<p>□ 케이백 비나와 홀트에너지, 베트남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발전사업 공동 추진 (2025.0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현지 폐기물 처리 전문기업 케이백 비나(KBEC VINA)와 울산의 수소연료전지 스타트업 홀트에너지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양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풍부한 생활폐기물 자원을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시작임 - 케이백 비나는 울산의 유성그룹이 2014년 베트남에 설립한 기업으로, 호치민 인근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홀트에너지는 고효율 청정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유망 스타트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자사의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발전 기술을 베트남 현지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됨 -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현지 실증 및 적용, 공동 사업화 모델 개발,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상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임. 한국의 수소 기술과 베트남의 현지 인프라가 결합된 이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양국 간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기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업	-
대학교	-
해외	-
기타	-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주)보령 김정균 대표, "미래 우주 시대에 필요한 의약품 개발이 목표"(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보령의 김정균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강연에서 미래 우주 시대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임무라고 선언함. 김 대표는 과거 '대항해 시대'가 현재의 세계 질서를 형성했듯이, 미래 질서는 우주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주 헬스케어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역설함 - 그는 대항해 시대 선원들이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으로 고통받았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우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제약회사의 역할임을 강조함. 이러한 비전 아래 보령은 2022년부터 우주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우주 환경에서의 의학 연구와 신약 개발을 위해 우주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 중임 - 보령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지난해 미국 액시엄스페이스와 합작법인 '브랙스스페이스'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김 대표는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익 창출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 큰 도전에 나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령이 우주에서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은 이러한 기업 철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기업</p>	<p>□ 인세라솔루션, 우주광통신 핵심부품 'FSM' 국산화로 글로벌 시장 공략(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인세라솔루션이 저궤도 위성 간 레이저 통신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인 '고속정밀조절미러(FSM)'를 국내 유일하게 개발 및 양산하며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목받는 기업으로 떠오름. FSM은 위성의 미세한 흔들림을 보정해 통신 레이저를 나노 단위로 정밀하게 조준하는 부품으로, 인세라솔루션의 기술력은 이미 국내 대기업에 납품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음 - 인세라솔루션의 FSM은 1km 거리에서 0.1mm를 조준하는 수준의 초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발사 시의 강력한 충격과 극한의 우주 환경을 견디는 내구성까지 확보함.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유럽 기업만이 생산 가능한 이 부품을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대규모 양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임 - 회사는 내년 5월 누리호 5차 발사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부품의 우주 실증을 앞두고 있음. 두 차례의 실증이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인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확보하게 됨. 스타링크 등 글로벌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확대에 FS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세라솔루션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교</p>	<p>□ 전북대·서울시립대 공동연구팀, 실리콘 기반 차세대 근적외선 광센서 개발 성공(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기존 실리콘 기반 광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적외선(NIR) 영역에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차세대 광센서 기술을 개발함. 이 기술은 고가의 화합물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센서로, 자율주행 라이다, 우주 탐사,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크게 기대됨 - 연구팀은 상용 반도체 공정(CMOS)과의 호환성이 높은 실리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근적외선 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스켈럽-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텐덤 구조'를 구현함. 실리콘 기판 위에 독특한 스켈럽 나노선 구조를 형성하고, 그 위에 장파장 흡수 특성이 뛰어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결합시켜 빛의 흡수율과 광전 변환 효율을 대폭 끌어올림 - 새롭게 개발된 광센서는 1000nm 파장에서 기존 실리콘 센서 대비 광전 변환 효율이 최대 77.1% 향상되었으며, 8.2 마이크로초(μs) 수준의 매우 빠른 응답 속도를 기록함. 또한 200회 이상의 반복 테스트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출력을 보여 우수한 내구성을 입증했으며, 저명 국제 학술지 '스몰 사이언스'에 게재되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교</p>	<p>□ 계명대 연구팀, 항공·우주 시스템 설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 최적화 기술 개발 (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명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익현 교수 연구팀이 극초음속 비행체와 같은 극한 환경 시스템의 열관리 성능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기술을 개발함. 이 기술은 유전자 알고리즘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 설계 프레임워크로, 기존의 고비용·고난이도 설계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우주·극한에너지 시스템 설계의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극초음속 비행체의 표면을 보호하는 막냉각 기술은 비행체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한 설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음. 김 교수팀은 기존의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단일 목적 최적화로 변환하고 파레토 거리 기반 평가기법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설계자의 개입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자동 최적화를 가능하게 함 - 이번 연구 성과는 유체역학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 'Physics of Fluids'에 게재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음. 김익현 교수는 이 기술이 향후 복합재 표면의 열차폐 코팅 최적화나 복합 냉각 유동 제어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계 학습 기반의 고신뢰 최적화 기술로 확산되어 산업 실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p>	<p>□ 트럼프 행정부, 스페이스X와의 정부 계약 유지 불가피 결론(2025.07.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로 스페이스X와의 연방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전면 재검토 결과 계약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이는 스페이스X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국방부와 NASA 등 정부의 주요 임무에 필수적이며, 현재로서는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및 예산 조정 법안을 비판하자, 정부 보조금을 끊겠다며 연방총무청(GSA)을 통해 국방부에 스페이스X와의 모든 계약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함. 그러나 관계 기관들은 검토 이후 오히려 스페이스X의 계약 대부분이 국가 안보와 우주 탐사 임무에 핵심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함 - 실제로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팰컨 로켓과 국제우주정거장(ISS) 유인 왕복이 가능한 유일한 미국 상업용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우주군을 위한 GPS 위성 발사 등 국가 안보 임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음. 이번 일은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 산업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영향력을 확보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 유럽우주국(ESA), 한국 우주항공청과 공식 협력 추진으로 '한·유럽 우주동맹' 가시화(2025.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우주국(ESA)이 한국의 우주항공청(KASA)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기본협약(MOU)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힘. 이는 과거 개별 연구자 수준에 머물렀던 양측의 교류가 정식 협정 기반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구도가 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우주 협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주목됨 - 알렉산더 수석 ESA 국제협력담당관은 한국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달 23개 회원국이 한국과의 협력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함. ESA는 향후 위성항법시스템, 기초과학 연구, 태양 영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항공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음 - 프랑스 현지 항공우주 전문가들 역시 지금이 한국과 유럽의 우주 협력을 확대할 적기라고 강조함. 특히 프랑스국립항공대(ENAC)와 국립고등항공우주학교(ISAE Supaero) 등 엘리트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KAIST, 서울대와 같은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 및 한서대 등 실무특화 대학과의 인재 교류에 큰 기대를 보임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